

김치체험으로 엔화 소득 현장

(주)산정농산식품, 오키나와 여고생 60여명 방문

12월14일 일요일 아침 9시30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소재 (주)산정농산식품에 대형버스 2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일본 오키나와 소우가쿠 고등학교 학생 60여명이 이날 김치만들기 체험을 위해 (주)산정농산식품(대표 장복기)을 방문했다.

이날 학생들은 체험복장으로 갈아입고 체험장에서 절임배추에 김장속을 넣는 법을 배우고 김치를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등 체험에 즐거운 표정이었다.

한국을 수학여행차 방문한 여고생들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여행사에서 색다른 체험관광코스로서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 직원에 따르면 "언론에 자세히 알려져 있어 일본 학생들이 수학여행 코스로 선정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1인당 1만5천원의 체험경비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주)산정농산식품은 1996년11월에 설립하였으며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산정호수 인근 해발

600고지에 위치하여 고품질 배추를 이용해 맛좋은 김치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포천그린농업대학(제2기생) 출신인 장복기 대표는 "시설을 더 늘리고 싶어도 이 지역에서는 어렵게 묶여 있다"며 "공장을 좀더 확대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고 체험대상을 다양하게 발굴해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방문한 농업기술센터 이경훈 소득작목팀장은 "비록 달리는 아니지만 1인당 일일액의 비용을 받고 추진함으로써 엔화를 벌어들여 어려운 우리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소방서, 텐터설비 공정중 화재발생업체 대상 간담회

포천소방서(서장 임정호)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텐터설비사용 섬유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천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최근 2년 동안 텐터설비 공정중 화재가 발생한 14개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텐터설비는 기계 내부에서 생산공정이 대부분 이루어지며 화재발생시 초기 소화가 곤란하고 설비 전체가 훼손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간담회를 준비하였으며, 포천소방서에서는 지난 2년동안 2건(07년 1건, 08년 현재 1건)의 텐터관련화재

와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텐터설비 사용공정에서 화재발생 지점을 살펴보면 텐터기(웹머)12건, 집진기(배관) 7건, 닥트(배관) 2건 순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공장관계자들은 단순 텐터기 과열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관계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집진기 배관 내부에 부착된 응축수, 낙모 등 유류잔존물 제거작업과 온도조절센서 수시점검 등을 통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12월14일 일본 오키나와 소우가쿠 고등학교 학생 60여명이 김치만들기 체험을 위해 (주)산정농산식품을 방문했다.

주민 및 조합원 불편해소 위해

가산농업협동조합 정교지점 개점

가산농협협동조합(조합장 심재호)은 12월11일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553-4번지에 정교지점을 개점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정종근 포천시의회 부의장, 황일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 안남근 영종농업협동조합장, 이상용 영북농협협동조합장, 이상만 전 도의원, 이용휘 가산면장, 이문순 내촌면장 등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교리 지역 조합원과 주민들은 교통불편을 겪으며 마산

리에 있는 가산농협을 이용했으나 이제 가까운 정교지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문을 연 정교지점은 전체 1천406㎡, 건축면적 398.46㎡(금융점포 292.10㎡, 창고 106.36㎡)로 2008년7월 착공해 12월2일 준공했으며 공사비는 14억원이 투입됐다.

가산농협 정교지점은 지점장을 포함 모두 5명의 직원이 신용사업과 함께 경제사업 업무를 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산농협협동조합은 12월11일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553-4번지에 정교지점을 개점했다

제8대 조동숙(화현면) 회장 선출

포천시생활개선회 2008년 연말총회

포천시생활개선회(회장 조금자)는 12월16일 80명의 읍면동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 연말총회를 개최했다.

2009년부터 2년동안 생활개선회를 이끌어 갈 제8대 신규 임원으로 회장 ▶조동숙(화현), 부회장 ▶송태숙(가산) ▶이순애(신북), 총무 ▶이성규(소흘), 감사 ▶정은자(이동) ▶박귀섭(군내)씨가 각각 선출됐다.

신임 조동숙 회장은 "농촌여성 지도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 하겠다, 조직의 활성화와 단합으로 지역에서 인정받는 단체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생활개선회는 그동안 생활기술교육, 영농기술 등의 농촌생활에 필요한 각종 교육 참여와 4회의 도농교류행사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및 우리떡전시회를 개최해 쌀 소비 촉진과 전통 떡의 대중화에 기여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생활개선회는 12월16일 80명의 읍면동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 연말총회를 개최했다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85 日式퓨전요리전문점 이끼이끼

역대 대통령의 입맛을 사로잡은 주방장

소흘읍 송우리에 日式퓨전요리전문점 개업



대표 선성태

스위스그랜드호텔(5성급) 퍼스트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일식요리경력 10년차인 주방장이 2008년 5월에 日式퓨전요리전문점 이끼이끼 송우본점 명 맞은편에 개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끼이끼(いきいき)는 '신선한, 생생한'이라는 뜻의 일본어로 싱싱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겠다는 주방장의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다.

주로 호텔에서 근무시절 알게 된 지인들로 선 대표의 손맛을 아는 단골고객이 주로 이루고 있다고 한다.

선 대표는 "정통일식은 정해진 코스요리가 위주라서 손님의 취향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접대일 수 있지만 퓨전요리는 손님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번 오신 고객은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며 단골고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선 대표는 4계절 요리를 준비 중인데 봄에는 도미, 여름에는 물회, 가을에는 자연송이, 겨울에는 과메기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과메기는 겨울철 요리로 선보이고 있는데 비릿함이 없고, 한입 베어 물면 시원하고 비릿한 향과 함께 고소함이 입안 가득 묻어나다며 제철음식으로 추천하고 있다.

과메기라는 생소한 이름의 음식은 청어나 콩치를 썰어 말린 것을 말한다. 콩치를 바닷가에 널어놓고 일주일에서 열흘쯤 말리면 밤에는 열고 낮에는 녹으면서 콩치의 기름이 빠지면서 꾸들꾸들해진다. 겉포기에는 건어를 갈지만 속은 말랑말랑하다. 이를 미역이나 김 등으로 싸서

“4계절 제철음식 외에도 연어샐러드, 월남쌈, 통통새우바베큐샐러드, 日式대구탕수, 매콤해물볶음면, 모듬초밥, 새우칠리 등 다양한 퓨전요리 개발”

이끼이끼 선성태(39.사진)대표는 "일식조리사 취득후 지금까지 정통일식요리만을 고집해왔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을 만들고 싶어 개업하게 됐다"며 "자주 오시는 손님들은 음식 맛이나 취향을 기억해 두었다가 맞춤형 퓨전요리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선 대표의 요리솜씨는 부단히도 노력한 결과도 있었지만 타고난 재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성급 호텔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젊은 나이에 퍼스트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VIP손님에게 대구지리(맑은탕)를 선보였는데 알고 보니 역대 대통령이었다고 한다. 요리로 처음 알게 된 인연으로 VIP 손님은 선 대표를 자주 찾았던 한다. 현재 이끼이끼에 자주 찾는 손님들은

먹는다. 한마디로 바다의 맛 그대로를 입안으로 옮겨놓은 듯한 맛이다. 김의 고소함, 미역의 시원함에 촉촉한 과메기의 감칠맛이 더해지면 소주 한잔은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

이끼이끼에서는 4계절 제철음식 외에도 연어 샐러드, 월남쌈, 통통새우바베큐샐러드, 日式대구탕수, 매콤해물볶음면, 모듬초밥, 새우칠리 등 다양한 퓨전요리를 개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퓨전요리전문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며 독특한 아이디어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日式퓨전요리전문점 이끼이끼 선성태 대표가 16만 포천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규 기자 cho2182@paran.com



소흘읍 송우리 교보생명 맞은편에 위치한 日式퓨전요리전문점 이끼이끼 전경 (예약문의 031-544-2727)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면세포기 하면 매입세액 환급받을 수 있다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천만원을 공제 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 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 판매분)을 겸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 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가기재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대상액에 X종급금액 면세공급금액=공제대상액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34-443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보일러 내부 과열로 인한 증기·폭발

▶해해발생원인
2008. 9. 3(수) 11:30 경 경기도 소재 (주)○○○○ 섬유원 단 세척 및 탈수 작업장에서 탈수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탈수수조장치와 급수펌프의 상호기능 불량으로 보일러가 과열로 폭발하여 그 충격으로 조립식 패널로 만든 작업장 지붕이 붕괴되고 전연선(버너 및 wind blower)이 폭발하면서 파편이 탈수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전신을 가격하여 피재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다. 보일러 안전운전방법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일러 안전운전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 실시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저수위조절장치 등의 방호장치 관리 철저
• 보일러 폭발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수 및 연료 계통의 방호장치 (고저수위조절장치, 압력방출장치 등)가 연동되어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작동시험실시 등의 관리 철저
나. 보일러 자체검사 실시
• 위험기계가구 중 하나인 보일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유자격자로 하여금 자체검사 실시
다. 보일러 안전운전 방법

▶보일러 본체 내부에 저(低)수위가 발생하였으나 고저수위조절장치의 작동 불량
• 보일러 자체 검사 미 실시
• 보일러는 위험기계가구이므로 자체검사, 일상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 실시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자격 취득하는 달 보험료 부과하지 않아

■ 개정내용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변경됨.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일 경우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됨.

■ Q&A
고객: 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담당자입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를 해야 하나요?
상담: 현행법에서는 직원이 새로이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 1. 1부터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담: 예를 들면 2007.6.25. 근로자가 새로이 입사한 경우 입사한 달의 보수가 일할 계산되어 연금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입사한 달인 6월부터 한 달 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7월부터부터 납부하도록 바뀌어,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 031-544-8700